

#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다시 떠나요

### 정읍시 코로나 중단 지원사업 재개 왕복 항공료 등 최대 500만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막혔던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은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결혼이

민자 가정에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현지 교통비,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 규모는 4인 가정 기준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간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이 우선된다. 신청은 오는 8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

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모국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향 나들이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735가구 2723명으로, 정읍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청소년 부모'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청소년부모'란 올해 6월 1일 기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가구를 뜻하며 이들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그간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

았지만 이처럼 연영이 어린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신청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 액증명원 등 본인확인자료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요천 물놀이시설 개장 바닥분수 등 9종 물놀이기구 1170㎡ 규모...내달까지 운영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

남원시가 아름다운 남원 요천 고수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을 본격 개장했다. 남원시는 남원 최대 음악분수인 '요천 수경 음악분수' 옆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은 총 1170㎡의 규모로 유수폭장과 물놀이장, 바닥분수와 9종의 물놀이기구 등으로 구성된 가족단위와 연인,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됐다.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은 최근 시범운영을 마치고 개장해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여름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이 무더

운 여름,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을 확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특별한 남원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원송이두창 24시간 비상방역체계

### 5개 팀 20명 방역대책반 가동

고창군이 국내 첫 원송이두창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은 관내 30여 의료기관에 원송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배부했다. 또 의심 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환자(의심) 모니터링, 역학조사, 병상 배정, 검사·치료 협업체계 유지,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의심되는 임상증상 및 예방수칙과 입국 후 9주간의 잠복기간 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원송이두창에 감염되면 5-21일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붉은 반점 같은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해 수포·농포(고름)·가피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고창군민 발생지역 방문,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전화상담실 또는 고창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카드 추석 전 신속 지급

군산시가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8436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지급제의 대상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9월에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9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추석 전에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 지급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며, 2021년에 7993농가에게 4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캠프에 오세요

### 전북도교육청 8월 6~7일 열어 참가가족 4~8일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에게 가족과 함께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같이 과학을 만나고 함께 체험을 나누요'를 주제로 '2022년 숨이 있는 과학산책(가족과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족과학캠프는 다양한 융합인재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프는 오는 8월 6~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무주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포함, 3~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4~8일 동안 온라인

(<https://naver.me/FnvkKKIB>)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등 3~6학년 학생 2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우선 선정되며, 우선 선정기준을 반영한 추첨으로 참가 가족을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 및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친환경 과학체험 ▲어울누리 활동 ▲무주 탐험대 등이 있다.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 장학사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과학활동을 경험하며 과학의 원리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산책하듯이 과학을 만나고 다양한 과학체험 과정에서 탐구력과 협업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조사료 생산 10개 사업 35억원 투입

### 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남원시가 조사료 생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나섰다. 남원시는 소 사육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10개 사업에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의 품질 및 생산량을 높이고 소 사육농가에 생산비절감과 고

급육 생산, 산유량 증대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에는 소(한우, 젖소) 4만여두가 사육되고 있고 연간 조사료 필요량은 10여만 t이다. 이중 40%는 재배조사료, 40%는 볏짚 등 부산물, 20%는 수입산 조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재배 조사료의 생산량 증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